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 - 2016》을 지도하시였다



## 1 면에서 계속

경기에 참가한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이 평시에 변마려운 비행술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정확하고 솜씨있게 리착륙을 진행하는것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축하의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의 치렬하고 열띤 경기모습을 보시며 비행술이 높다고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비행훈련을 강화하여 모든 비행사들을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비행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항공군 인의 모든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은 이번 경기대회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앞으로도 백두산훈련열풍의 불가마속에서 훈련의 질을 끊임없이 높이며 비행훈련을 정상화, 생활화, 습성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은 《우리 당의 출격명령만 기다린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훈련하고 또 훈련

하여 일단 최후공격명령이 내리면 일격에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라 침략의 본거지들을 가차없이 초토화 해버리고 남침하는 인민군부대들에 전격의 대포로를 열어주라고 강조하시였다.

경기대회 시상식이 있었다.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경기대회 순위를 발표하였으며 리명수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우수한 단위와 성원들에게 깃과 메달, 상장을 수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기대회에서 1등을 정취한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을 만나시고 드겁게 고무 격려해주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기대회가 끝나자 경기참가자들과 관람자들은 백두산혁명강군의 강화발전을 위해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사를 드리면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여쭙고있었다.

전군의 장병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새 년도 전투정치훈련 명령판첩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때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 - 2016》은 훈련혁명의 불바람속에서 인민군대를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는 무적필승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역적같이 다짐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폭풍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안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로운 진군길을 가로막아보려고 무질질한 발버둥치는 철천지원수들에게 무자비한 정벌의 불소나기를 피우고야말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멸적의 의지를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한 뜻깊은 계기로 된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절세위인들을 높이 우러러모시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절세위인들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온갖 지성을 다하셨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의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지니고 금천군광곡만대소 로동자 박경희는 금수산태양궁전수목원관리사업에 지성을 바치였으며 절세위인들의 태양상모자이크 벽화를 정중히 모시는데 필요한 자재들을 지원하였다.

8.28형년돌격대 대한 리철은 주체의 혁명전풍을 굳건히 옹호고수하는 길에 정순의 자욕을 새겨갈 마음이고 성의껏 마련한 많은 물자들을 조선혁명박물관에 보내주었다.

만경대구역 민정대상점 로동자 한은하, 대상은행 산하단위 부원 김성국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만수무단덕에 올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하셨다.

평양인과종합병원을 우리 나라의 가장 발전된 안과전문병원으로 꾸리기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가슴에 새기고 평양역전태화정 로동자 리원옥은 매일 전투현장에 찾아가 공사를 불심판면으로 도와주었다.

민중경제협력위원회 산하단위 기사 김원철도 인민들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당의 사랑과 은덕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일념으로 병원건설을 적극 지원하였다.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것을 새 세대의

도덕적의무로 간직한 서성공업대학 교원 리덕범은 10여년간 영예군인이 혁명의 뜻을 계속 피워가도록 그의 건강과 생활을 극진히 돌봐주어 집단의 존경을 받고있다.

사리원시상사수도난방사업소 로동자 박광남도 오랜 기간 영예군인을 위해 사심없는 진정을 바쳤으며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친현육의 정을 다해 키워 내세우는 미풍을 발휘하여 사회주의대가정에 미덕의 향기를 더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을 지닌 근로자들은 백두산선출위인들을 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빛내이는데 더욱 헌신할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스통신은 김정은명도지께서 조선인민군 대원함부대별 내성방사포병사격경기를 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명도지께서는 포병훈련을 실천환경에 접목된 실용적인 훈련으로 전환함에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과 포병무력강화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게 되시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빛내이는데 더욱 헌신할 열의에 넘쳐있다.

미국의 UPI통신은 김정은명도지께서 최근 인민군 부대들에 대한 시찰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명도지께서 직직승기북전대소멸을 위한 내성방사포병중대들의 포사격경기를 통하여 내성방사포병들의 전투능력을 판정 및 확정하고 대책을 세우며 전군에 백두산훈련열풍을 지레올리시기 위하여 이번 사격경기를 조직하시고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고 전하였다.

백두산은 조선에서 혁명의 성산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김정은명도지의 고향이기도 하다.

김정은명도지께서는 사격경기를 지도하시면서 육체적한

계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지만 조선로동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내성군인들의 총정심은 남성군인들과 조급도 차이가 없다고 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포병들이 언제 어디서든 포사격명령을 받아도 즉시에 명중포탄을 날릴수 있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로씨야의 즈베즈다TV방송, 중국의 신화통신, 《북방강신분》, 신화망, 국제방송망, 만나신분 《더 미로 데일리》, 알제리 인민신문 《알 빌라드》, 기네 국내, 국제방송, 7개민족어방송, 도이쉴란드민중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물》과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주제 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세스포조선선선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는 시남전선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김리도전초기지와 장계도망어대를 시찰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신문, 인터넷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보시였다.

【조선중앙통신】